소망의 언덕

최 정 원 목사
광주소망교회 담임

"반의 반이라도 접어보자"

몇 년 전 우리 교회 권사님이 서울 원자력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다. 수술 후 일반 병실로 옮겨진 권사님 심방을 갔는데 권사님은 나를 보자 첫 마디가 "목사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군요"였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의사 선생님을 보고 안심 했어요." "왜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의 눈이 목사님의 눈과 거의 비슷해서 그렇게 반갑고 정겨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눈만 닮아도 그 중요한 순간에 안심이 된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하고 초초해 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나 역시 그런 경험이 있다. 몇 년 전 우리 동에 새로운 동장님이 부임하셨다. 며칠 후 직원들과 교회로 인사를 오셨는데 차를 마시면서 동장님은 명함 한 장을 건넸다. 그 순간 세상에! 내가 목회하면서 나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그 장로님과 이름은 똑같고 성만 달랐지만 성도 받침 하나만 달랐다. 그 장로님은 천국으로 이사 가셨지만 동장님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관계적 동물이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화해를 보여준 장면이 에서와 야곱의 화해이다. 에서와 야곱부터 사람들은 왜 평생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평생 원수가 되는가? 그것은 누군가 내 것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밥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은 내 것에 집착하는 것은 사람 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사실 내 것을 건드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지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내 것을 건드리면 평생 원수가 되는 것이 사람의 관계이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간 불편한 관계로 지낸 것은 야곱이 어머니와 짜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강탈한데서 부터 시작한다. 구약의 대표적인 라이벌로 등장하는 사울과 다윗의 흑역사 역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삼상18:7)의 여인들의 노래에서부터 기인한다.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장대까지 준비한 것은 모든 사람은 절하는데 모르드개만 절하지 않은데서 오는 갈등의 시작이다.

에서와 야곱의 갈등, 사울과 다윗의 갈등, 모르드개와 하만의 갈등은 사실 나의 문제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이며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 온 지구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다툼과 갈등을 넘어서 화해와 화목으로 가기 위해서는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를 위해서 한 행동과 결단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의 마음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창32:7) 즉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0여 년의 시간을 넘어 갈등을 화목으로 풀러 가는 야곱은 먼저 형 에서에게 8종류 550마리의 짐승을 보낸다. 그리고 얍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 환도뼈가 골절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다. 형이 4백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 때 4명의 아내에게서 얻은 자식들은 순서를 정해서 앞과 뒤를 정했지만 자신은 맨 앞에 서는 결단을 보여주었다. 야곱이 뒤로 숨지 않고 맨 앞에 선 것은 형 에서와의 문제를 푸는 가장 큰 열쇠는 형에게 먼저 보낸 선물 550마리의 짐승이 아니라 바로 야곱이 쥐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야곱은 얍복강에서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뚝거리고 있다. 그 절뚝거리는 야곱이 7번이나 땅에 굽혔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창33:3) 왜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7번이나 땅에 엎어지며 절을 했을까?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계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 신앙의 위기, 생명의 위기이다.

에서 앞에선 야곱은 말이 달라진다. 에서가 야곱의 자식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고 묻자 자식 자랑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창33:5)이라고 한다. 돈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야곱은 입을 열 때마다 형님 형님 한다. 그리고 최고의 결정적인 한마디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창33:10)이다. 그러자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와 맞이하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서로 울면서 내 동생아 내 동생아 하며 극적인 화해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화해와 화목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화해와 화목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철저히 기도하고 준비하여 실행에 옮길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 한경직 목사님의 대표적인 캐릭터는 '약함의 사람'이었다. 그런 한경직 목사님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성 프랜시스인데 그 역시 약했다. 아주 약했다. 재산도 없고, 학문도 없고, 다 없었다. 그런데 교회사에서 그분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친 사람도 별로 없다.

나는 늘 나에게 외치는 단어가 있다. 그것은 '통과'이다. 좋은 말도 너무 오래 담고 있으면 교만하기 쉽고 책망의 말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 걸려 넘어져 낙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좋은 말도 교만의 싹이 트기 전에 통과, 책망의 말도 좌절의 싹이 트기 전에 통과를 외친다. 같은 이야기를 박영희 시인은 '접는다'는 말로 표현했다. 참 맘에 드는 표현이다. 가정에서도 접어보고, 직장에서도 접어보고, 교회에서도 접어본다면 아무리 작아도 어느 곳이든 들어갈 수 있겠고 아무리 막아도 누구의 품에든 안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도 외쳐본다. 통과! 접는다, 반의 반이라도!

접기로 한다 / 박영희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더 접어야 / 종이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보면 / 아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 햇살에 배겨 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에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산책

변 명

임 석 인 목사
광주크리스찬아카데미대표

하나님은 종종 인간의 역사와 개인에 대하여 미리 예언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리브가에게는 쌍둥이 아들들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을 예언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사 백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왕국이 분열될 것을, 또 요나에게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상반된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왕은 그의 부친 솔로몬왕이 부과하였던 무거운 세금을 덜어 달라는 이스라엘 열 지파 대표들의 요구를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오만과 자만심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열 지파는 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솔로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열왕기상 11:11~13)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이미 하나님의 예언대로 왕국이 나눠지는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또 다른 사건 , 즉 니느웨에 대하여 예언된 사건을 살펴보면 분명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도망하다가 물고기에게 잡혀서 다시 니느웨로 갔을 때에도 하루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아마 건성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니느웨의 무너지는 장면을 보려고 전망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즉시 금식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볼 때 르호보암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북쪽 열 지파를 끌어 안았다면 왕국이 분열되는 것을 면할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야고보 사도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13) 하나님은 아무도 죄를 짓도록 시험하지 않으시며 교만한 것을 선택하게도 하지 않으십니다. 몇 해 전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꼭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와 같이 어느 민족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 내리려 하셨던 재앙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나 환경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려고 계획 하셨다가도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만약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환경이나 하나님께 전가한다면 그는 아담이나 하와와 같은 변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그저 무릎을 꿇는 것이 최 상책입니다. 변명 하는 일은 아담이나 사울에게 맡기고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도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만 해야 하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책임전가나 변명하는 일을 모른다거나 좋아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탓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가 당하는 유혹을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위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리화하려는 습관을 멀리해야 합니다. 성경은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한1서 1:9)라는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직장인콜링 100일 묵상집 _ 3.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일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에녹은 기도원에서 살지 않았다. 타락 이후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문명을 주도했는데, 에녹은 그 문명에서 벗어나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 것이 아니었다. 성경은 그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또 그 후에도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다고 말한다. 짧은 기록이지만 성경에 따르면 적어도 에녹은 가정생활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은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서 드러나게 된다. 또한 에녹은 일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라면 교회와 여러 공동체와 국가와 세계에 속한 사람의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죽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 데려가신 에녹의 승천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예표가 된다.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갈 성도들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살전 4:17).

이렇게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곁으로 불려간다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사모할 본향이 있는 것이다.

시민권을 하늘에 둔 자로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빌3:20). 또한 크리스천 직업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에녹이 그의 가정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 일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뿐 아니라 일터나 가정에서도 제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인도해주소서.

본지는 위 글을 저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원용일 목사 지음/도서출판 브니엘)

미션21 후원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하 남 교 회
표어 :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기적을 만들어 내는 해(마가복음2절 1-12절)

• 주일오전 1부 7:30 / 2부 9:30 / 3부 11:10 / 4부 12:50
• 주일오후 2:30
• 수요방예배 7:00
담임 임 춘 태 목사
62333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창공원로 76-12
대표전화: 062)951-9999 FAX: 062)952-5304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빛교회
표어 : 예수사랑 가족사랑

• 주일오전 11:00
• 주일오후 1:30
• 수요방예배 7:00
• 금요기도회 7:30
담임 이 원 제 목사
62244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남길 124-18 (도천동 355-11)
대표전화 : 062)371-9206

대한예수교장로회
신 창 교 회
표어 :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 28:19-20)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주일오후 1:30
• 수요방예배 7:00
담임 김 승 원 목사
62287 광주 광산구 구촌반촌길 291(신창동)
대표전화: 062)953-5374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광주한빛교회
표어 : "일어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이사야60:1-5, 마태복음5:14-16, 에베소서 5:8)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주일오후 2:00
• 수요방예배 7:30
• 새벽기도회 5:00
담임 문 희 성 목사
61746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길로 41번길 31(노대동)
대표전화: 062)676-8831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서남교회
표어 :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출15:26, 시30:1-5, 살전5:23)

• 주일오전 1부 7:00 / 2부 9:00 / 3부 11:00
• 주일오후찬양 오후 2:00
• 수요기도회 저녁 7:00
• 새벽기도회 새벽 5:00
www.gjsn.net
담임 조 택 현 목사
61657 광주광역시 남구 진다리로 12
대표전화 : 062)652-1004 FAX: 062)671-5313

대한예수교연합오순절교회
광주광명교회
표어 : 주께 구하라, 기리 열방으로(시 2편 8절)

• 주일낮예배 : 오전 11:00
• 주일찬양예배 : 오후 2:00
• 수요말씀예배 : 오후 7:00
• 유 · 초등부 : 오후 12:30
• 중 · 고등부 : 오후 12:30
• 청년대학부 :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 매일 5:00
• 금요기도회 : 오후 8:00
담임 고 석 원 목사
61652 광주광역시 남구 동산로 43
대표전화: 062)366-3058 , FAX: 062)369-3058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은평교회
표어 : 사명자의 삶 전도 선교 구제 장학 고아섬김 (마가복음 12장)

• 주일오전 10:40
• 주일오후 1:40
• 수요방예배 7:15
• 금요기도회 8:30
• 새벽기도회 5:00
담임 김 범 택 목사
62002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54-9(금호동)
대표전화: 062)375-7962 · 372-1004, 010-4605-7962

대한예수교장로회
새 희 망 교 회
표어 : 삶에 새희망을 주는 교회

• 주일오전 1부 7:30 / 2부 9:00 / 3부 11:00
• 주일오후청년 1:50
• 수요방예배 7:30
• 새벽기도회 5:30
담임 허 태 호 목사
62253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과기로 79-5번지
대표전화: 062)971-9190 FAX: 062)972-9190

대한예수교장로회
푸 른 솔 교 회
표어 : "힘과 소망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교회(시18:1-2)

• 주일오전 1부 8:00 / 2부 11:00
• 주일오후 1:30
• 수요방예배 7:30
• 새벽기도회 5:00
담임 김 사 라 목사
62308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11번안길 47
대표전화: 062)953-4620 · 010-8665-5522

대한예수교장로회
서 광 주 교 회
표어 : "이전 영광보다 더 큰 교회" (학 2장)

• 주일오전 2부 11:00
• 주일저녁 7:00
• 수요기도회 7:30
• 새벽기도회 5:00
담임 조 규 성 목사
61649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99번길 10
062)365-7004, 070-7572-9092 FAX: 062)365-7004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남북교회
표어 :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도의 산

• 주일오전 11:00
• 주일오후 2:00
• 청년부예배 오후 12:30
• 금요제자훈련 저녁 8:30
• 아동부, 중, 고등부 오전9:00각 부서
• 수요방예배 7:00
• 새벽기도회 5:00
담임 박 혜 영 목사
506-30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77-25
대표전화: 062)956-0114, 951-3221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성제일교회
표어 :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6장)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주일찬양예배 3:00
• 수 요 밤 7:30
원로 이 성 수 목사 담임 정 종 원 목사
57222 전남 장성군 장성읍 내기길 6
대표전화: (061)393-4551 FAX: 061)393-4552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원벧엘교회
표어 : "여호와에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 (잠10:22)

• 주일오전 11:00
• 주일오후 1:30
• 목요찬양예배 7:00 (싱로와 찬양예배와 함께)
• 새벽기도회 5:00
• 교회학교예배 오전 9:30
담임 김 양 수 목사
62002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113번길 7-1 (쌍촌동)
대표전화: 062)226-1009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산수교회
표어 :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이사야43:19)

• 주일낮 1부 오전 7:50
• 주일낮 2부 오전 11:00
• 주일 오후 1:30
• 수요저녁예배 7:30
담임 임 춘 수 목사
61411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3
대표전화: 062)263-0623 FAX: 062)264-8750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수영락교회
표어 :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 주일오전 1부 8:00 / 2부 11:00
• 주일오후찬양 1:30
• 수요방예배 6:30
• 새벽기도회 5:00
www.youngrak.or.kr
담임 김 성 기 목사
59754 전남 여수시 신월로 668-1(국동)
대표전화 : 061)641-6510-3 , FAX: 061)641-6514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백운교회
표어 : 사랑으로 하나되는 교회 (고전13:13)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3부 2:00
• 수요예배 저녁 7:30
• 새벽예배 오전 5:00
• 금요기도회 오후 4:00
담임 권 점 용 목사
61660 광주광역시 남구 백양로 7번길 8
대표전화 : 062)651-0388, 070-8275-6228

대한예수교장로회
봉황임마누엘교회
표어 :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지역 선교사다
• 주일예배 11:00
• 수요기도회 7:00
• 금요기도회 8:00
• 새벽기도회 5:30
담임 백 병 철 목사
나주 봉황면 죽석길 2(보건지소앞) bbc-1221@hanmail.net
전화 : 010-6632-1033(백병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남부교회
표어 : 참 교제가 있는 행복한 교회 (행2:42-47)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3부 3:30
• 수요예배 저녁 7:00
• 목요기도회 오전 10:00
• 금요기도회 저녁 7:30
• 새벽예배 오전 5:00
담임 서 한 국 목사
61614 광주광역시 남구 근분로 62번길 7
대표전화 : 062)352-9191, 364-7171 FAX: 364-7175